

# 감사권 남용 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 민주 윤준병 의원, '감사원 개혁법' 대표발의 "불법 정치감사 등으로 본연의 역할 훼손돼" 감사과정 절차적 적법성 강화... 사전 통지 의무화 정책감사 한계 등 감사원 직무 수행 범위 정립



최근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사건이 우려곡절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며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표적감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국회 농해수위)은 2일, 정치감사·표적감사 등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국가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행정기관의 사무 및 공무원의 직무 등을 감찰하는 만큼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훼손된 상태로, 감사원은 정책감사라는 미명하에 불법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실시하는 등 직무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한 지난 2020년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사건은 감사원의 무리한 권한 남용과 함께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표적감사의 대표적 사례로서, 엄정해야 할 독립기구가 정권의 정치보복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권한 남용 금지 명시, △감사 사유와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 및 이유 사전통지 등 절차적 적법성 강화, △정책감사의 한계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 범위 정립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기 위해 감사권한의 남용 금지 및 감사대상의 비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감사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강화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정책감사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감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유 없이 중복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징계 또는 문책 요구대상자 본인 등은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감사원을 당사자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의 재심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감사원의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전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 사전검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대상을 '적법한 감사를 방해한 자'로 명확히 규정해 권한 남용을 차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기관보다 엄격하게 요구되지만, 현재 감사원은 무분별한 권한 남용으로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를 일삼으며 윤석열 정권의 사정기관으로 전락했다"며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감사원이 감사권한 남용을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오늘 발의한 '감사원 개혁법'을 계기로, 무도한 전횡을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행태를 바로잡아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2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 전북지역 스페셜' 행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및 토론패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 백승훈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상무, 김관영 도지사, 강석훈 KDB산업은행회장, 최주열 현대기술투자 부사장, 박문수 인라이프벤처스 대표)

##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위 활동 본격

### 완주군의회, 위원장에 서남용 의원 선임... 오늘부터 지역 순회 통합반대 캠페인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반대특별위) 위원장에 서남용 의원이 선임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일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제28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남용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주갑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반대특별위는 행정통합에 따른 악영향으로 △완주군 특성·문화 등 자치권 훼손 우려 △재정감소와 지방세 부담 증가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와 지역 낙후 △관광공서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 등을 들었다.

서남용 위원장은 "통합을 위해선 복잡한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고, 통합 이후에도 사회적 비용과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이 수반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완주군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도시 각 분야의 역량을 소모적으로 낭비할 뿐"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미 3차례의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불발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통합이라는 정책으로, 완주군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전주시장과 전주권 정치인들의 행보에 완주군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완주군은 지속적으로



완주군의회는 지난 1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완주·전주 통합 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남용 의원을, 부위원장에 이주갑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독자적인 성장과 발전이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통합논의는 역사적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합보다 경제적 효과와 발전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남용 위원장은 "반대특별위는 앞으로 통합 사례 연구 및 통합장단점 분석 등을 토대로 전주와의 행정통합이 완주지역 및 전북 발전, 군민의 삶에 미치게 될 다양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완주군민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대특별위는 군민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에 이어 3일 삼례읍을 시작으로 고산면, 봉동읍, 용진읍 등 지역을 순회하며 완주·전주 통합반대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지난달 5일 제28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행정구역 통합 반대 결의문'을 의결·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주시, 전주시의회 등 기관에 송부한 바 있다. /원주=열재복 기자



### 익산시의회 하반기 개원식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2일 제9대 하반기 개원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김경진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더 큰 책임감과 헌신으로 익산시의회를 27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집행부와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등 익산시 발전을 견인하는 선진의회,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를 만들겠다. 또한,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확실하게 수행하는 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경숙 부의장과 2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도 당선소감을 밝혔다.

강경숙 부의장은 "부의장의 역할은 의원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행동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원 상호 간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는 익산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 장종민 임실군의회 의장 취임식

제9대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는 3일 본회의장에서 하반기 의장 취임식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군민 중심의 현장 의정,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 구현'을 약속하며, 힘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달 25일 제338회 임시회에서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장종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하반기 의회 첫 일정으로 오전, 임실군 강진면에 위치한 국립 호국원을 참배하고, 심민 임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의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제9대 하반기 의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오후에는 관내 기관 단체를 방문해, 임실군정과 하반기 의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관내 기관단체장 등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정읍시의회 하반기 원구성 마무리 | 의장-박일, 부의장-이만재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일부터 2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하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일 제1차 본회의 의장단 선거를 통해 박일 의원을 제9대 정읍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이만재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하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최재기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에 김석환 의원, 경제산업위원장에 오명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박일 의장, 이만재 부의장, 최재기 의회운영위원장,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박일 의원은 "소임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며 "정읍시민들과 함

상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캠페인